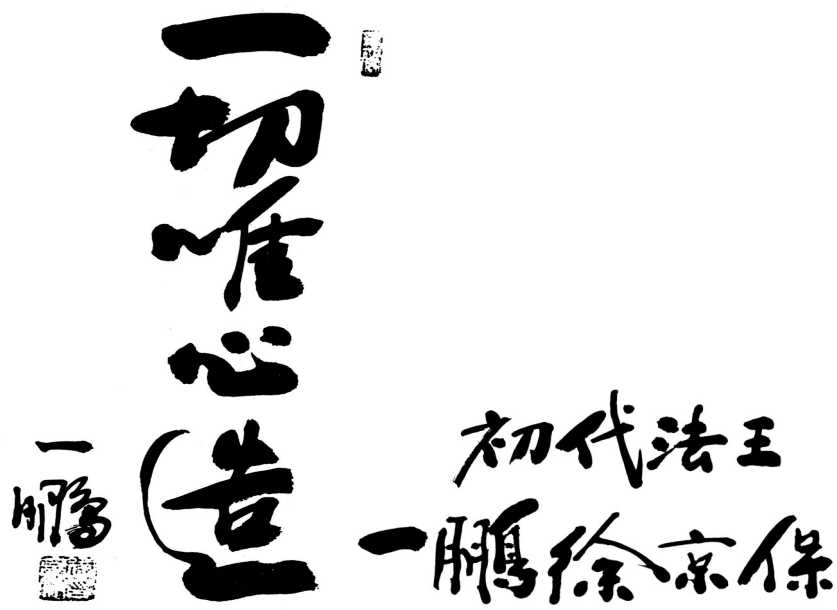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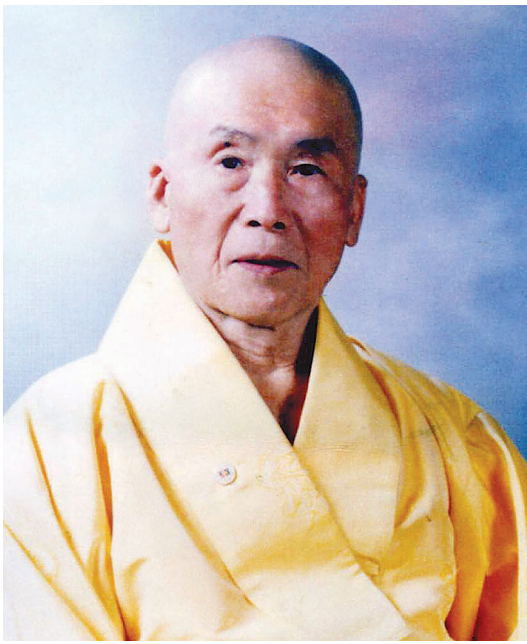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대법회

-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성황리에 열려 -



(사)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만주)는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제44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 대법회 및 제20대 회장단 이취임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이하 문도중앙회)는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을 초대 법왕으로 모시고 초대법왕을 기리기 위한 문도회로 이날 행사를 주최 주관하게 된 것이다.



세계법왕 의륜 대승정 法語

佛法有傳 一平生 (불법유전 일평생) 한평생 불법을 전하고 전하며 佛法一鵬 滿衆生 (전일불만중생) 만중생에 일붕이 있었다네 聖人本來 大衆心 (성인본래 대중심) 중생 마음이 본래 성인의 마음이라 諸法滿有 覺虛妄 (제법만유 각허망) 만 가지 모든 법이 허망한 것을 알아 一切衆生 願解脫 (일체중생 원해탈) 모든 중생 해탈의 도 얻으리 今日佛前 滿衆生 (금일불전 만중생) 오늘 이 자리에 대중들이 모여 佛法有傳 一心願 (불법유전 일심원) 부처님 가르침이 유전되기를 한마음으로 원하나니 時委大衆 願正覺 (시위대중 원정각) 이 자리 모든 대중이 원하는 바 바른법 이뤄 貪慾一時減 (투도탐욕 일시減) 탐욕과 다름으로부터 멀어지고 無常正覺 必成就 (무상정각 필성취) 부처님의 바른 법 반드시 성취하여지리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불교법왕 의륜 대승정, 문도중앙회 이사장 겸 회장 만주스님, 문도중앙회 명예 회장 용담스님,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문도중앙회 상임부회장 청파스님, 대한불교법왕청종 종정 청호스님, (재)한국근분불교조계종 용주스님, 대한불교조계종민족중흥회 만공스님, 연합불교방송 총재 향덕스님, 대한불교영축조계종 총무원장 향산스님, 대한불교법흥종 총무원장 무학스님,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문도중앙회 이사 법천스님, (사)한국불교대조종 김홍근 창종주, 세계불교조계종 불광사 현성스님, 미륵사 주지 다정스님, 세계불교수덕선원 보현 원장, 세계평화사랑연맹 한국국 이사장, 문도중앙회 신도회장 지향숙 보살 등 문도중앙회 회원 500여명이 동참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1부 불국도의 향연에서는 예불국악단과 축하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어 법회의 문을 열고 2부 본 행사는 중앙문도회 이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법천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국민이례, 반야심경, 내빈소개, 발원문, 일붕존자행장보고, 대회사, 취임사, 청법가와 법어, 격려사, 축사, 결의문 낭독, 만

일붕문도의 날 봉축 및 20대 회장 만주 스님 취임

세삼창, 사홍서원, 폐회선언,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미륵사 다정스님의 발원문에 이어 문도중앙회 이사 겸 대변인 법천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일붕존자님의 빛나는 행장은 익히 알고 있는 바 오늘 일붕존자님의 큰 뜻을 기리는 대법회에 전국 원근 각지에서 수회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대원스님은 대회를 통해 "신임회장 만주스님과 회장단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대법회를 계기로 문도들이 다시 뭉치고 화합하면서 우리 문도중앙회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불교법왕청도 더욱더 중흥시켜 세계불교사에 영원히 기록되도록 다같이 노력하

자"고 당부했다.

이어 가진 이취임식 행사에서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한 만주 스님은 취임사(우측 내용 참조)를 통해 "일붕존자님의 뜻을 받들어 문도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불교법왕 대승정 의륜스님은 법어(위원장 전문)를 내리고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해 전 문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화합과 희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승정 의륜스님의 법어(좌측 전문)에 이어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각계 내빈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으며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성대히 대법회를 마무리하고 3부 연수원 식당에서 합동 공양이 이어졌다.



20대 회장 만주스님 就任辭

"20대 회장직을 맡아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일붕존자의 법맥을 이어 받은 각 종단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된 단일교단으로 불교중흥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회를 창회하신 의륜 존자님의 뜻을 잘 받들어 본회가 한국불교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각오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각 종단의 대덕스님과 문도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일붕존자님의 향훈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과 기념문집 발간 등 차근차근 이뤄낼 것입니다. 또한 (사)한국불교대조종 창종주 김홍근님께서 문도회관 건립을 위해 2천평의 부지를 기증해 주신데 대하여 문도중앙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에서 정리)



격려사

민족불교광덕종 종정 조연스님
한국불교의 혁신운동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문도들은 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자타불이 사상을 실천하여 너와 내가 구별되는 개념을 벗어나 하나의 운명체며 공동체라는 혼연일체의 사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문도중앙회 회장단은 외형이 아닌 내실에 가치를 두어 자비나눔을 실천하여 중생의 빛이 되는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로 거듭나자.

축사

(재)한국근분불교조계종 용주스님
오래 전부터 의륜스님께서 종파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 지도자 양성과 중승종단의 위상제고를 위

해 매년 대법회를 문도라는 인연의 끈으로 묶어 봉행하도록 해오신 큰 뜻에 찬사를 드리며 종단 종파를 초월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기틀을 잡으신 용담스님과 전임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책임을 맡으신 만주스님 이하 회장단에 무궁한 발전과 성과가 있기를 발원한다.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상임부회장 청파스님
오늘 뜻깊은 대법회를 통해 우리 문도중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세상이 더욱 평화롭기를 바라는 여법한 법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제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공덕만 두루 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하기를 바란다. 우리 문중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우선 서로 다른 주장과 방법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원용회통의 전통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

(사)대한불교법왕청종 종정 청호스님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성실히 받들기 위해서는 일붕문도들이 일치단결하여 육화의 참마음으로 화합종단, 화합문도의 참모습을 갖춰야 하며 바로 오늘이 그런 법적인 것이다. 불교계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의 징후가 일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사부대중에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형제 모두 청정한 자비회사의 수행중풍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연합불교방송 총재 향덕스님
우리라는 인식이 절실한 지금, 불심도문으로 전체를 생각하며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교의 중흥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부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삶의 최고의 가치인 승가 공동체는 우리 현실의 귀의처이며 중생을 구

원할 원력을 가진 가르침으로 부처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공동체임을 믿어 의심치 말자.

대한불교영축조계종 총무원장 향산스님
부처님의 진리는 현실과 미래가 공존하는 것. 땅 위에서 살아있는 현실의 세계도 있고,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미래의 세상이기도 하다. 오늘 새로이 출범하는 회장단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삶으로 인도하고, 문도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햇살이 세계만방에 밝은 빛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신임회장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만주스님께 축하인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문도중앙회가 더욱더 화합 단결하여 나날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며

불교계 민영교도소를 보은지역에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중이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불교계 종교지도자님들의 각별한 질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대한불교법흥종 총무원장 무학스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음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분쟁은 그 모두가 신뢰하고 의지할 가치관의 상실에서 오는 것으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중생들을 위한 중생의 종교로서 역할을 다할 때 자비와 이해와 화합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 불법의 진리를 가슴 문득하게 맞을 수 있는 뜻깊은 대법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1일 오전 9시와 12일 낮 12시, 13일 오후 7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행사 사진

